2015호주아시안컵 조별 순위

(18일 현재)

A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	한국	3	0	0	3	9
2	호주	2	0	1	6	6
3	오만	1	0	2	-4	3
4	쿠웨이트	0	0	3	-5	0

B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	중국	3	0	0	3	9
2	우즈벡	2	0	1	2	6
3	사우디	1	0	2	0	3
4	북한	0	0	3	-5	0

C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	UAE	2	0	0	4	6
2	이란	2	0	0	3	6
3	바레인	0	0	2	-3	0
4	카타르	0	0	2	-4	0

D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	일본	2	0	0	5	6
2	요르단	1	0	1	3	3
3	이라크	1	0	1	0	3
4	팔레스타인	0	0	2	-8	0

2015호주아시안컵 일정 및 결과 (한국시간)

※M은 경기(Match)의 약어.

일정	구분		대진		시간	개최도시
1/9 (금)	A	4	호주 : 쿠웨이트	1	18:00	멜버른
10 (토)	A	1	한국 : 오만	0	14:00	캔버라
	B	1	우즈베키스탄 : 북한	0	16:00	시드니
	B	0	사우디아라비아 : 중국	1	18:00	브리즈번
11 (일)	C	4	UAE : 카타르	1	16:00	캔버라
	C	2	이란 : 바레인	0	18:00	멜버른
12 (월)	D	4	일본 : 팔레스타인	0	16:00	뉴캐슬
	D	0	요르단 : 이라크	1	18:00	브리즈번
13 (화)	A	0	쿠웨이트 : 한국	1	16:00	캔버라
	A	0	오만 : 호주	4	18:00	시드니
14 (수)	B	1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4	16:00	멜버른
	B	2	중국 : 우즈베키스탄	1	18:00	브리즈번
15 (목)	C	1	바레인 : UAE	2	16:00	캔버라
	C	0	카타르 : 이란	1	18:00	시드니
16 (금)	D	1	팔레스타인 : 요르단	5	16:00	멜버른
	D	0	이라크 : 일본	1	18:00	브리즈번
17 (토)	A	0	호주 : 한국	1	18:00	브리즈번
	A	1	오만 : 쿠웨이트	0	18:00	뉴캐슬
18 (일)	B	3	우즈베키스탄 : 사우디아라비아	1	18:00	멜버른
	B	2	중국 : 북한	1	18:00	캔버라
19 (월)	C		이란 : UAE		18:00	브리즈번
	C		카타르 : 바레인		18:00	시드니
20 (화)	D		일본 : 요르단		18:00	멜버른
	D		이라크 : 팔레스타인		18:00	캔버라
22 (목)	8강전		A조 1위 : B조 2위(M1)		16:30	멜버른
	8강전		B조 1위 : A조 2위(M2)		19:30	브리즈번
23 (금)	8강전		C조 1위 : D조 2위(M3)		15:30	캔버라
	8강전		D조 1위 : C조 2위(M4)		18:30	시드니
26 (월)	준결승		M1 승자 : M3 승자(M5)		18:00	시드니
27 (화)	준결승		M2 승자 : M4 승자(M6)		18:00	뉴캐슬
30 (금)	3·4위전		M5 패자 : M6 패자		18:00	뉴캐슬
31 (토)	결승전		M5 승자 : M6 승자		18:00	시드니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 633 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9	12	19	20	39	41	13

1등 총 당첨금 : 1,417,607,085,128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조건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2 명	1,217,257,094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47 명	51,798,175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789 명	1,360,825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87,613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430,227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5. 1 . 17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군데렐라' 이정협, 또 통했다

호주전 결승골…한국 조1위 견인

군대 1년 선배 이근호 패스 골로 연결
사우디전 A매치 데뷔골 이어 또 폭발
"'신데렐라'답게 끝까지 내 역할 집중"

이근호(오른쪽)가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호주와의 A조 3차전 도중 네이선 번스의 거친 저항을 뚫고 볼을 빼내고 있다. 이근호는 전반 33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이정협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브리즈번(호주) | AP뉴시스

이정협(24·상주상무·사진)은 축구국가대표팀에서 '신데렐라'로 통한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은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를 눈여겨본 뒤 최종 엔트리(23명)에까지 포함시켰다. 모두가 놀랄 만한 결정이었다.

이정협은 자신의 A매치 데뷔전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4일 시드니)에서 대뜸 데뷔 골을 터트렸다. 이어 17일 브리즈번에서 벌어진 개최국 호주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선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결승골까지 뽑았다. 전반적인 경기력 측면에선 여전히 의문부호를 낳고 있지만, '신데렐라'라는 별칭에 딱 어울릴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정협은 호주전을 마친 뒤 "사실 5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브리즈번 경기장의 표가 거의 다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풀타임으로 뛴다기보다는 내 한계가 될 때까지만 뛰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전반 33분에는 결승골까지 넣었다. 그는 "대표팀에서뿐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해본 적이 많지 않아 힘들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정협은 골을 기록한 직후 군인 신분에 걸맞게 거수경례로 세리머니를 대신했다. 그런데 호주 관중이 엄청나게 많은 쪽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는 "골을 넣고 거수경례를 했는데,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더 보란 듯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봤다"고 털어놓으며 멋쩍게 웃었다.

이정협은 이날 이근호(30·엘자이시SC)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했다. 둘은 지난해까지 상주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근호가 이정협의 군대 1년 고참이다. 이정협은 "경기가 끝난 뒤 (이)근호 형이 '군인들끼리 한 건 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더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근호는 "(이)정협이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100% 수행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압박을 잘해줬다. (이)정협이가 골을 넣어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팀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며 후배를 한껏 치켜세웠다.

이정협은 "신데렐라라는 별명은 좋은 것 같다. 그에 어울릴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전 기회가 주어지면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게 볼이 왔을 때 잘 소유해야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발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멜버른(호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한국-호주전 기록

한국	구분	호주
1	득점	0
9개(3개)	슛(유효 슛)	14개(6개)
32.8%	볼 점유율	67.2%
1개	오프사이드	2개
4개	코너킥	7개
68.6%	패스 성공률	87.8%
255회	패스 횟수	515회
9회	크로스 횟수	24회
13개	파울	19개
2장(0장)	경고(퇴장)	2장(0장)

태극전사 호주전 개인 기록

구분	볼터치(횟수)	패스(횟수)	패스 성공률	슛(유효슛)	찬스 메이크
김진수	48	619	84%	0(0)	2
김영권	19	610	60%	0(0)	0
곽태휘	26	14	64%	1(0)	0
김창수	54	20	60%	0(0)	1
이근호	77	54	79%	1(0)	2
기성용	48	37	81%	1(0)	0
박주호 (전41 OUT)	26	17	88%	0(0)	1
한교원 (후31 OUT)	24	11	72%	1(0)	0
구자철 (후4 OUT)	28	18	77%	0(0)	1
이정협	34	22	68%	3(2)	1
한국영 (전41 IN)	19	11	100%	0(0)	0
손흥민 (후4 IN)	29	13	61%	1(0)	1
장현수 (후31 IN)	17	11	90%	1(1)	0

골키퍼

구분	세이브(횟수)	세이브성공률	편칭횟수
김진현	6	100%	1

골키퍼들 빛나는 '0의 행진'…점유율 축구는 미완성

▌조별리그 3경기를 통해 본 슈틸리케호

축구국가대표팀은 17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개최국 호주를 1-0으로 따돌려 3전승, 조 1위로 8강전을 맞이하게 됐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지만, 사실 내용 면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1·2차전에서 불안감을 노출했던 태극전사들은 다행히 3차전에선 강호 호주를 상대로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를 정리해봤다.

●선발로 뛴 21명이 합작한 3연승

아시안컵과 같은 대회에선 라인업이 자주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은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대표팀 라인업에 많은 변화를 줬다. 10일 오만전에는 사실상 베스트 전력을 가동했다. 그러나 13일 쿠웨이트전에선 부상자들과 컨디션 난조를 보인 선수들이 다수 발생해 불가피하게 오만전 베스트11에서 7명을 바꿨다. 3차전에선 8강전에 대비해 일부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다시 베스트11에 변화를 가했다. 결국 23명의 최종 엔트리 중 21명이 베스트11에 포함돼 3경기를 나눠 책임졌다.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로는 골키퍼 정성룡(수원삼성)이 유일하다. 그러면서도 '슈틸리케호'는 3경기를 모두 이겼다. 보기 드문 결과다.

●3연승의 일등공신은 수문장

대표팀은 3경기에서 모두 한 골씩 넣고 이겼다. 무실점이 3연승의 원동력이었다. 수비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은 형편에서 골키퍼의 활약이 빛났다. 오만전에서 김진현(28·세레소 오사카)은 경기 종료 직전 골이나 다름없는 헤딩슛을 막았다. 그는 호주전에 다시 선발 출전해 6차례의 슛을 모두 막았다. 후반 43분 호주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았다. 김승규(25·울산현대)는 쿠웨이트전에 선발로 나서서 김진현 못지않은 선방 퍼레이드를 펼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만전 당일에야 주전 골키퍼를 결정했을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했다. 현 대표팀 수문장들의 기량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점유율 축구는 언제쯤 가능할까?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패스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오만전에서만 그가 원하는 축구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이다. 2차전 볼 점유율에선 쿠웨이트와 큰 차이가 없었다. 호주와의 경기에선 32.8%대67.2%로 밀렸다. 3경기 모두 승리했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주전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은 태극전사들이 8강전부터는 슈틸리케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

멜버른(호주) | 최용석 기자

조별리그 3경기 5골…탄탄한 전력에 선수 활용도 다양

▌8강 상대 우즈벡은 어떤 팀?

한국이 2015호주아시안컵 4강 길목에서 마주칠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결정됐다. 18일 멜버른에서 벌어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3-1로 이긴 우즈벡(2승1패)은 같은 날 북한을 2-1로 꺾고 3전승을 올린 중국에 이어 조 2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역대전적에서 8승2무1패로 우즈벡을 압도한다.

카시모프 감독이 이끄는 우즈벡의 전력은 상당히 탄탄하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3실점했지만, 5골을 뽑은 공격력은 만만치 않다.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데, 상황에 따라선 섀도 스트라이커가 전방 깊숙이 전진해 4-4-1-1 형태를 이룬다.

특히 다양한 선수 활용이 눈에 띈다. 북한과의 1차전(1-0 승), 중국과의 2차전(1-2 패)에선 멤버 구성을 똑같이 했지만, '꼭 이겨야 했던' 사우디전에선 큰 변화를 줬다. 공격형 미드필더 아흐메도프를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뒤 원톱-공격 2선을 책임질 4명을 바꿨다. 익숙한 좌우 날개 제파로프-투르수노프를 벤치에 앉힌 승부수가 적중했다. 오른쪽 윙 포워드 라시도프가 2골로 사우디전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고, 중앙 미드필더 쇼디예프는 1-1로 팽팽하던 후반 26분 결승골을 터트렸다.

우즈벡 포백 수비는 파울이 잦고 공간 침투에 약한 면모를 보인 반면 좌우 풀백 데니소프-무크하마디예프의 과감한 오버래핑은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공격 전개가 측면에서 이뤄졌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구자철 팔꿈치 인대 파열…아시안컵 중도하차

이청용(27·볼턴)에 이어 구자철(26·마인츠·사진)도 부상으로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중도 하차한다.

대표팀 관계자는 "17일 호주전에서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은 구자철은 오늘(18일) 오전 브리즈번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정밀검사를 받았다.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파열됐고, 대표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잔여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브리즈번에서 벌어진 호주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 후반 시작 직후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 점프했다가 상대 수비수 매튜 스피라노비치(웨스턴 시드니)에게 밀렸다.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오른 팔로 땅을 짚을 때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통증을 호소한 구자철은 들것에 실려 라커룸으로 나갔다.

2011년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15회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한국의 3위 입상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구자철은 이번 대회는 공격포인트 없이 2경기만 치른 채 마감하게 됐다. 10일 오만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구자철은 감기몸살로 13일 쿠웨이트와의 2차전 때는 결장했다. 컨디션을 회복해 호주전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결국 부상으로 남은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 구자철의 빈자리는 이근호(30·엘자이시SC), 남태희(24·레퀴야SC), 이명주(25·알 아인) 등이 번갈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멜버른(호주) | 최용석 기자